

MB, 권재진 고집... 여 소장파 집단행동

민본21 “부적절” 의총 요구...野 일제반발 靑 “법무·검찰총장 인사 관련 黨과 상의”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소장파가 집단 행동에 나서는데 등반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법무 장관,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오늘 당과 상의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당과 상의한 뒤 검증 회의 등 최종 검증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일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낙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오면 검증 회의 등 최종 검증 절차를 거쳐 권 수석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인사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의원들 개개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인사는 예정대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21’은 이날 오전 모임에 갖고 대통령 핵심 측근이자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청받고 있는 권 수석이 법무 장관에 기용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자리에서 정태근 의원은 “권 수석은 저축은행과 관련해 전화청탁로 비리를 받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이야기를 (청와대에) 전하지 않고 본인(홍 대표)은 반대하지 않

겠다고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당원의 한 사람이 권 보노한다”면서 “채신 지도부로 뽑아 왔는데 하는 행태가 울드보이와 닮았다. 실망스럽다”고 경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민본 소속 의원들은 권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보고 원내대표에게 소집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두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대통령님 정말 너무해요. 인사 때마다 이렇게 당을 어렵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요”라고 개탄했다.

이에 앞서 전날 채신과 모임인 ‘새로운 나라’와 4선 이상들의 회의체

인 증진연석회의에서도 이번 인사의 부적절성이 지적되는 등 ‘권재진 불가튼’이 여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끊이지 않던 국정 난맥, 정책 혼선, 불통 정치 등은 모두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에서 출발했다”며 “임기 말까지 측근 기용을 고집하느라 믿음을 그르쳐버린 개각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다는 과거 정부들의 경험을 이 대통령이 명심하라”고 밝혔다.

순하규 대표도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검찰권 장악으로 임기 후반이나 퇴임 후를 관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분란과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 눈을 의심하지 않든, 청와대의 오만한 건방진 태도이며 참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新중소기업보호법 지정 추진

자영업자·골목상권 특별법 등 10대 中企대책 발표

민주당은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신(新) 중소기업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위기 극복의 결실이 대기업으로 집중돼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10대 중소기업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신중소기업보호법을 지정해 이들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사업조정제 이행명령 불복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대책에는 또 중소기업 관련 부처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불공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과 함께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 중소기업자재 구매

량(MRO)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현재 68.7조원)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현재 3.2조원) 비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치를 2015년까지 80%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하규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찾아 울먹이는 예금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세론, 지난 대선때와 비슷”

홍준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 “순하규 박찬 상대”
“당정청 충돌하면 공멸 ... 친서민정책면 140석 가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세론은 복지나 친서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경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세론’과 유사한 형태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증견연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당내) 유력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개인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7년 ‘이회창 대세론’은 당정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계층이 이탈했고, 2002년에는 후보 자체의 병역문제가 국민정서를 자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에서 가장 위협적인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가장

박찬 상대는 민주당 순하규 후보”라고 했고, 홍선 전장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이 상태로 가면 120석 전후지만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면 140석 전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당정청 관계와 관련, “정부 출범 이후 전반기는 개혁을 위해 청와대가 선도하지만 후반기에는 당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는 당이 책임지고 하지만 당정청이 충돌하면 공멸한다”고 조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헬빙정당’의 명에 벗고 명실공히 ‘서민정당’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산과업을 하겠다”면서 당 운영의 3대 키워드로 ‘서민·현장·신뢰’를 내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친박계 ‘집토끼-산토끼’ 논쟁

유승민 최고 무상급식 수용 등 내세우자
전통지지층 ‘박근혜 생각이나’ 우려 표명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최근 ‘집토끼(전통지지층)-산토끼(새 지지층)’론이 회자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승민 최고위원이 ‘용감한 개혁’을 기치로 서민복지 부문에서 무상급식 수용 등 전향적 정책을 내세우고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것을 놓고 ‘집토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 핵심 중 한 명인 최경환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와 같은 우파 정책까지 ‘MB노믹스’라며 공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경부의 한 친박 의원

은 14일 “당 밖 인사들을 만나보면 유 최고위원이 내건 주장이 박 전 대표와 공감대를 거쳐 나온 것이 회자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외부의 우려 어린 시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최고위원은 “당연히 집토끼를 놓칠 수 없다는 우려가 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보수가 바뀔 때나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저축銀 국조’ 시작부터 파행

‘핵심증인’ 채택싸고 여야 폭로·비방전...민주 전체회의 보이콧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초반부터 공전하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간 한겨레투기 폭로와 비방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여야 간사는 지난 11~13일 3차례 협의를 통해 60여명의 증인 채택에 의견을 모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14일 오후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기 위해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특히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저축은행의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우재창 의원은 “신삼길 회장의 불법자금 24억원이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이영수 KMDC 회장을 통해 한나라당의 지니엘 7·14 전대와 이범7·4 전당 당시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야당은 저축은행 자금이 전대에 흘러갔다는 허무맹랑한 성명을 내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에 실패할 때라 향후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여야 간사는 주말까지 접촉을 이어가며 늦어도 18일에는 정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조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1타경 2143	1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690 347㎡ 토소 276 932㎡ 토소 277-1 413㎡ 토소 277-2 2523㎡ 토소 277-9 79㎡ 토소 277-11 136㎡ [현황:잡종지]	대 담 담 담 담	44,937,000 44,937,000	일괄매각, 제시외 토소, 비닐하우스 매각제외, 수목포함, 목책4-8봉지취득자격증명요, 목책1현황:축사부지
2011타경 2662	1	신안군 압해면 송골리 1-48 1193㎡ [현:목전]	전	84,60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목포함
2011타경 3450	1	신안군 증도면 증리리 357 2146㎡	전	22,384,000	일괄매각, 목책1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목포함
2011타경 3702	1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56-1 2608㎡ [현황:과수원]	전	46,9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목매각제외
2011타경 4071	1	목포시 용당동 171-29 525㎡ 토소 171-35 182㎡ 토소 171-61 74㎡ 토소 171-63 215㎡ 토소 172 162㎡ 토소 173-1 73㎡ 토소 173-11 79㎡ 토소 173-12 65㎡	잡종지 대 대 잡종지 잡종지 전 전	308,365,000 308,365,000	일괄매각, 목책5,9도시계획도로지속, 현황:주거지
2011타경 4361	1	무안군 해제면 대시리 428-1 4760㎡ [현황:일부임야]	전	26,65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소제
2011타경 4477	1	무안군 운남면 동말리 1323-25 2526㎡	목장용지	24,502,200	현황:담,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4934	1	목포시 연산동 983-9 1187㎡	전	130,5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4996	1	신안군 안좌면 신촌리 258 810㎡	담	4,0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5142	1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578 1997㎡	담	16,375,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5203	1	무안군 해제면 안골리 1085-1 15442㎡ 토소 1085-2 5273㎡	전 임야	181,275,000 181,275,000	일괄매각, 목책1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5265	1	함평군 영암면 상정리 619-2 1275㎡ [현황:임야]	담	10,2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과수목포함
2011타경 5326	1	무안군 상항동 지산리 1154-6 3980㎡	담	79,6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목매각제외
2011타경 5654	1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2912-1 894㎡	담	8,49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5982	1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629-6 1188㎡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현황:일부잡종지]	전	261,360,000	농지외건물, 콘테이너